

파니움 - 제이십일번

영화로운 땅에서의 일요일 법령을 향한 움직임

Jeff Pippenger

2026-03-05

다니엘 11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역사는 일요일 법령의 예표로 시작하여 그 예표로 종결된다. 그 구간의 시발과 종결이 동일하다는 사실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의 서명을 드러낸다. 예언적으로 이는 16절이 22절과 상응하도록 요구한다. 이렇게 할 때, 마카비의 계열로 표상된 영화로운 땅의 역사는 10절부터 15절의 역사로 옮겨진다.

마카베오

마카베오 항쟁은 1776년에 시작되어 1798년에 미국이 성경 예언상 여섯째 왕국이 되었을 때 끝나는 22년을 표상한다. 이는 숫자 22를 1798년의 끝의 때에 직접적으로 결부된 역사로 식별하며, 바로 그 지점에서 다니엘 11장 40절이 시작한다.

22라는 수와 1798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마카베오 봉기는 미국 혁명을 예표함으로써, 영화로운 땅(문자적 및 영적)의 두 혁명을, 셀레우코스 왕조와 유럽의 왕들의 통치술과 그리스와 로마의 교권정치를 거부한 혁명으로 서로 일치시킨다. 두 역사적 증언 모두에서 그리스와 로마는 북방 왕을 대표하였다.

마카베오 계보는 23절에 제시되어 있으나, 그것이 대표하는 역사는 15절의 파니움 이후 33년 뒤에 시작되었고, 16절의 폼페이우스보다 백 년 남짓 앞선 것이다. 그 계보는 십자가의 심판에서 끝나는데, 그 심판은 주후 70년까지 미쳤으나, 그 심판의 기간은 22절에서 단순히 '십자가'로 지칭된다. 예언적으로 마카베오 계보는 1776년부터 영화로운 땅을 대표하며, 이어 1798년의 하스몬 왕조와 그 다음의 헤롯 왕조를 거쳐 십자가와 주후 70년에 이르는 전개를 담고, 22절에서 끝나며, 그 시작은 1776년부터 1798년까지의 22년이다. 1776년부터 1798년까지의 22년은 또한 9/11부터 2023년까지의 22년을 예표하는데, 이는 다니엘 10장에서 22일로 예표되었다. 마카베오 계보는 '22'로 시작하여 '22'로 끝난다.

로마의 네 통치자

16절부터 22절은 네 명의 로마 통치자를 직접 지목하며, 그 절들 안에서 또 하나의 계보를 나타낸다. 마카베오 계보는 '반복과 확대'의 원리에 따라 정렬되어 있고, 로마 계보는 그 절들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된다. 폼페이는 세 가지 장애물 가운데 처음 두 가지를 정복하였고, 기원전 31년 악티움 전투에서 로마는 성경 예언의 넷째 왕국으로서 왕좌에 올랐다. 그 뒤를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티베리아스 카이사르가 이었다. 폼페이는 장군이었고, 마지막 세 상징은 황제들로서 서로 결속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22절에서 로마의 네 명의 통치자 중 최후의 자가 죽으므로, 우리는 로마의 네 명의 통치자 중 마지막을 16절의 일요일 법령으로 소급하여

연결해야 한다. 그리하면 폼페이는 네 개의 이정표 중 첫째를 대표하게 되고, 네 번째이자 최종 이정표가 16절의 일요일 법령과 일치한다. 16절은 티베리아스 카이사르로 대표되고, 15절의 파니움 전투는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로, 11절의 라피아 전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로 대표되며, 이에 따라 폼페이 장군은 10절과 1989년으로 표시된다.

이는 다니엘 11장 40절의 '감추어진 역사', 곧 1989년 소련 붕괴로부터 41절의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가, 10절부터 23절이 제시하는 역사 속에 나타나는 세 가지 예언의 계열로 표상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곧 마카베오 가문, 로마의 통치자들, 그리고 로마의 대리 세력들이 벌인 세 차례의 전투이다.

이번이 내가 너희에게 가는 세 번째다.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모든 말이 확정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13:1.

세 차례의 대리전

10절은 기원전 219년부터 217년에 일어난 제4차 시리아 전쟁의 종결을 가리킨다. 이때 안티오코스 3세 마그누스(대왕)는 11절의 전투, 곧 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로 대표될 라피아 전투에 앞서 병력을 재집결하였다. 10절은 또한 40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9년 소련의 붕괴를 가리키며, 폼페이우스는 그 역사와 부합한다. 16절은 영화로운 땅 유다의 정복을 표상하며, 이는 미국의 일요일 법을 예표한다. 그러나 폼페이우스는 1989년과도 부합하고, 1989년에 현대 로마는 첫 번째 장애물을 정복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현대 로마는 영화로운 땅과 비밀 동맹을 맺도록 로널드 레이건을 유혹함으로써 동시에 영적으로 개신교 미국을 정복하였다. 왕이 로마의 창녀와 맺는 동맹은 영적 음행을 표상한다.

1989년은 로마의 음녀가 땅의 모든 왕들과 음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칠십 년에서 나오기 시작한 때였다. 그 첫째 왕은 1989년의 미국인데, 이는 미국이 또한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으로 표상되며, 이세벨은 이사야 23장의 두로의 음녀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는 두로가 한 왕의 시대와 같이 칠십 년 동안 잊힘을 당하리니, 칠십 년이 끝난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와 같이 노래하리라. 잊혔던 기생아, 수금을 가지고 성읍을 두루 다니며 아름답게 연주하고 많은 노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네가 다시 기억되리라. 칠십 년이 끝난 후에는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실 것이요, 그가 다시 값을 받고 땅 위 세계 모든 나라들과 더불어 음행하리라. 이사야 23:15-17.

다니엘 11장 40절에서 표상된 바와 같이, 1798년 '끝의 때'에 그녀가 치명상을 입었을 때 그 음녀는 잊혀졌다. 1989년 '끝의 때'에 그녀는 자신의 치명상이 치유되는 기간을 시작하는데, 이는 그녀의 권위의 표를 가장 먼저 강제 시행하게 될 그 왕국과 음행함으로써이다. 그 왕국은 아합과, 538년에 교황권을 땅의 보좌에 올려놓고 교황 권세의 부상을 지지한 주도적 왕국이었던 프랑스로 예표되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가톨릭 교회의 장자'이자 '가톨릭 교회의 맏딸'이라 불린다. 프랑스와 아합은 1989년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미국의 역할을 함께 증언한다.

이사야 23장에서 두로의 창녀는 요한계시록 17장의 창녀이기도 하며, 그 이마에는 '큰 바벨론'이라 기록되어 있다. 그 창녀는 미국의 역사에서 1798년부터 '잊혀진다'. 그때 교황권은 성경 예언의 다섯째 왕국, 곧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더

이상 아니게 되었다. 그 후 미국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서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의 역할을 시작하였다. 궁극적으로 미국은 요한계시록 17장의 열왕들 가운데 으뜸 되는 왕이 된다. '칠십 년'이라는 기간, 곧 '한 왕의 날들'이라는 상징적 역사는 성경 예언의 첫째 왕국으로서 바벨론이 통치하던 칠십 년을 가리킨다. 이것은 1798년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미국의 역사를 예표하는데, 미국 역사의 외적 선은 공화주의의 별로, 내적 선은 개신교의 별로 대표된다. 그 두 별은 국가권력과 교권의 분리를 보장하는 헌법의 핵심을 대표하며, 미국의 미래의 주제가 된다.

두로의 창녀가 잊히도록 칠십 년이 정하여졌고, 그 후 1989년의 종말의 때로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노래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비밀 동맹으로 시작하여, 미국 개신교의 종교를 장악하고 소련의 붕괴와 함께 남방왕의 정치 구조를 전복하였다. 열과 일곱으로 나뉜 열일곱 해의 기간의 한가운데에 대왕 안티오쿠스가 서 있는 그 역사에서 종결되는 칠십 년의 기간이 있으며, 이 "열"과 "일곱"을 곱하면 "칠십"이 된다. 라피아와 파니움 사이에서 종결된 외적 이백오십 년의 시작점에서, 내적 이천삼백 년의 시간 예언이 "칠십" 이레가 다니엘의 백성 위에 작성됨으로써 시작된다. 그 칠십 이레의 끝인 서기 34년에,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혼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자신의 그리스도인 신부와 혼인하시어 이방인들에게로 손을 내미셨다.

주전 207년, 안티오쿠스는 '칠십'의 한가운데에 서 있으며, 그분께서 현대 이스라엘을 일으키기로 택하신 '영화로운 땅'으로서 그의 왕국이 누려 온 은총받은 민족의 지위가 종결됨을 가리키고 있다. 일요일 법령에서 여섯째 왕국으로서의 미국의 종말은 이사야의 '칠십 년'의 끝이다. 안티오쿠스의 250년선은 제16절의 일요일 법령 직전에 미국의 공화주의 별에 대한 은혜의 시기의 종결을 가리킨다. 1844년 10월 22일 심판이 시작되면서 끝난 이천삼백 년은 일요일 법령에서 심판이 마칠 때를 예표한다. 이천삼백 년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문자적 이스라엘의 종결을 가리키는 칠십 이레로 시작한다. 이천삼백 년의 총 기간의 종말은 재림 운동이 일요일 법령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개신교 운동이 끝남으로써 결론된다. 1844년의 닫힌 문이 반복될 때, 그 문들은 공화주의의 별, 개신교주의의 별, 그리고 정부 짐승에 대하여 닫힐 것이다.

안티오쿠스가 열과 일곱의 시기 사이에 선다는 것은 그의 은혜의 시한의 끝에 선다는 뜻이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미국 정부의 은혜의 시한은 일요일법 시점에 닫히지만, 공화주의 별의 은혜의 시한은 일요일법 이전에 닫힌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까지가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니라. 마태복음 18:22.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숫자가 이와 같은 방식의 배수로 표현되는 유일한 경우이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은 다니엘의 백성을 위하여 '정하여진' 사백구십 년이다. 그것은 이천삼백의 시작이 되는 칠십 이레이며, 동일한 기점으로부터 이백오십 년의 끝에서 안티오쿠스가 열과 일곱의 한가운데에 이른다. 거기에서 안티오쿠스 대왕은 위대한 대논쟁의 성스러운 드라마 속 그의 이야기의 마지막 막들에서 자신의 입장을 취한다.

1844년의 단힌 문은 일요일 법령의 단힌 문을 표상하며, 16절의 일요일 법령 이전에 안티오쿠스가 자기 왕국의 종말을 표하면서 7년의 기간이 시작되고, 그 7년이 끝나는 때에 그의 왕국이 종결된다. 그 7년의 기간은 짐승의 형상 시험의 때를 표상하며, 그 기간은 321년의 최초의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된다. 마지막 일요일 법령을 예표하는 최초의 일요일 법령 이전에는 칙령으로 시작되는 10년의 기간이 있다. 313년의 '칙령'에서 10년으로 표상된 시험이 시작되고, 이어 안티오쿠스가 최초의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며, 공화정의 별의 은혜 기간이 끝난다. 7년의 끝에 파니움과 일요일 법령이 도래하여 330년에 동서의 분열을 초래한다.

폼페이우스

폼페이우스는 십육절에서 영화로운 땅을 정복하였으나, 기원전 65년부터 63년에 이르는 2년의 기간 동안 폼페이우스는 다니엘서 8장 9절의 성취로서 실제로 '동방'과 '[영화로운] 땅'을 정복하였고, 이는 사십절과 1989년에 있는 이중 정복을 예표하였다.

이교 로마의 세 번째 장애에 해당하는 일은, 로마에서 최초의 공식적 삼두정, 곧 로마의 최초의 공식적 삼중 연합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진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에 의해 완수될 것이다. 로마 통치자들의 세 번째 이정표에 이르러 삼중 연합이 로마 역사 속에 공식적으로 각인된다. 그리고 16절의 일요일 법령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이 확립되고, 이어 스가랴가 밝힌 바와 같이 사악함의 새가 시날에 있는 그녀의 처소에 다시 놓인다.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는 최초의 공식적인 로마 삼두정치를 구성했으나, 역사가들은 그것을 제2차 삼두정치라 부른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또한 삼두정치를 구성하였으나, 그것은 로마 정부의 공식적인 삼두정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임박한 일요일 법령의 때에 나타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을 상징하는 자로서의 율리우스와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의 관계는, 일요일 입법을 강제하려는 운동의 시작에서는 율리우스로, 그 끝에서는 아우구스투스로 예표된다. 그 예언적 관계는 또한 67년의 케스티우스의 포위로 표현되며, 그 뒤를 이어 티투스의 포위가 뒤따랐다. 율리우스는 케스티우스요, 아우구스투스는 티투스이다. 율리우스와 아우구스투스는 그 삼중 연합을 상징하고, 케스티우스와 티투스는 포위를 상징한다.

예언적으로 보아, 일요일 법령을 위한 운동이 시작되는 시기는 313년, 곧 밀라노 칙령의 때이다. 그런 다음 321년에, 그 17년 기간의 중간점에서, 첫 번째 일요일 법령이 제정된다. 왕국이 동서로 분할되는 세 번째 단계, 곧 미국에서 짐승의 표나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과 받지 않는 자들로의 분할을 표상하는 그 단계는 330년이었다. 하나의 일요일 법령으로 이끄는 일련의 일요일 법령들이 있으며, 321년은 첫째 일요일 법령을 대표하고, 그것이 330년의 마지막 일요일 법령으로 이끈다.

안티오쿠스의 이백오십 년과는 달리, 네로의 이백오십 년은 팔 년의 기간과, 그 중간 지점인 첫 번째 일요일 법령, 그리고 이어지는 구 년을 식별한다. 선에 선을 더하듯, 안티오쿠스와 네로는 세 개의 이정표로 표상되는 두 기간을 식별한다. 두 선 모두에서 처음과 마지막 이정표는 동일한데, 시작에는 혼인으로 표지된 칙령이 있었고 그 혼인은 이혼으로 끝났으며, 시작과 끝에는 북방 왕과 남방 왕 사이의 전투가 있었다. 가운데에 있는 321년의 첫 번째 일요일 법령이 안티오쿠스가 서 있는 자리여야 한다. 그는 십

년으로 표상되는 시험의 과정의 결말에 서 있으며, 그 시험의 과정은, 그가 '여덟째이되 일곱에 속한 자'인 짐승의 형상을 형성함에 따라, 안티오쿠스를 '여덟째이되 일곱에 속한 자'로 드러낸다. 동시에 십사만 사천은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여, 일곱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여덟째인 빌라델비아 교회로 변모한다.

첫 번째 일요일 법령에서 그 형상을 세우는 일이 시작되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의 일요일 법령에서 완결된다. 그 절은 미국이 어린양으로 시작하여 용으로 끝남을 대조한다. 숫자 13은 반역의 상징이며, 11절의 문맥에서, 곧 미국이 용 같이 말하는 때에 그 반역의 상징은 짐승의 표이다. 반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들의 상징은 숫자 11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은 미국이 용 같이 말하는 일요일 법령 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의 분리를 가리킨다.

'짐승의 형상' 시험의 때는 그 도래를 가리키는 구체적 표징들을 지니며, 동시에 그 종말을 예표한다. 노아로부터 나팔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시험의 때가 도래하기 전에 그것을 미리 선포하신다. 그분의 선포는 그분의 예언의 말씀 안에서 발견된다. 대부분의 재림교인들(내가 추정하건대)은 예루살렘의 파괴에 두 차례의 포위가 있었다는 것, 또는 최종 파괴의 날이 느부갓네살이 처음, 알파의 때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였던 그 해의 동일한 날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또한 그 포위들이 거룩한 절기들에 시작되어 거룩한 절기에 끝났으며, 그 포위의 기간이 삼 년 반이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할 수 있다. 만일 그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한다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짐승의 형상' 시험의 때의 가장 완전한 표상에서 그 시작을 표지한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기서 '완전한 표상'이란 그 최종적 성취를 의미한다.

동일한 기간은 1888년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로 표상되고, 다시 9/11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로도 표상된다. 그러나 313년부터 330년에 이르는 시기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로 표상된 짐승의 형상이 세워지는 예언적 기간의 완전한 성취는 1989년의 종말의 때 이래 여덟째 대통령의 재임기에 시작된다.

첫째 일요일 법령으로부터 안식일과 일요일을 둘러싼 시험의 기간이 안티오쿠스의 일곱 해로 표상되는 기간 속에서 전개된다. 안티오쿠스의 일곱 해에 네로의 아홉 해를 곱하면 육십삼이 되며, 기원전 63년에 폼페이우스가 다니엘 11장 16절의 성취로서 영화로운 땅을 정복하였다. 일요일 법령 때에, 자기들의 왕국을 두로의 음녀에게 주기로 합의하는 열 왕 가운데 수석 왕으로 미합중국을 아홉 왕이 인정할 것이며, 그 음녀는 이어서 땅의 모든 왕들과 음행할 것이다.

열 처녀 비유의 예언적 구조와 일치하여,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혼인은 1989년에 이루어졌으나, 일요일법에서 그 혼인이 완결된다. 그 역사의 프랙탈은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된 산 자의 심판의 기간이다. 그 시점부터 일요일법까지는, 짐승의 우상의 시험의 때이자 동시에 십사만 사천인의 인침의 때이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아브라함의 언약 예언의 성취 가운데 그들이 거주해 온 그 땅 위에 심판이 집행된다. 그 기간에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심판을 받고, 이어 자신을 처녀라 공언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개신교의 뿌리 심판을 받으며, 그 심판은 먼저 공화주의의 뿌리에 속한 민주당이 심판을 받은 때로부터, 이제 2024년에

이러러 같은 공화주의의 뿔에 속한 공화당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다. 입헌 정부는 그 두 뿔을 지닌 짐승이며, 일요일법에서 심판을 받는다.

1989년부터 일요일 법령까지의 역사는 9/11에서 일요일 법령까지의 프랙탈로 표상되지만,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의 완전한 성취는 일곱에 속한 여덟째 대통령의 때에 이루어진다. 네로의 17년은 9/11에서 일요일 법령까지의 역사의 프랙탈이다. 안티오쿠스의 17년도 마찬가지로이다. 레이건과 비밀 동맹의 혼인은 여덟째 대통령의 임기 중 공개적 동맹으로 완결된다. 알파와 오메가의 혼인들 가운데 첫째는 2001년 애국법으로 표상되었는데, 그때 영국법이 로마법으로 변경되었다. 밀라노 칙령의 혼인은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의 완전한 성취의 시작을 표시한다. 그 구조는 열 처녀의 혼인의 구조에 근거하며, 참된 혼인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거짓된 혼인을 표상한다.

짐승의 우상 시험의 때는 우리가 '인침'을 받기 전에 통과해야 할 '시험'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집이 먼저 심판을 받고, 그다음에 일요일 법령에서 하나님의 집 밖에 있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집에서의 최종 심판 기간과 이어지는 큰 무리에 대한 최종 심판 기간은 첫 번째 일요일 법령으로 시작된다. 미국에서 첫 번째 일요일 법령이 있을 것이며, 그것은 짐승의 우상 시험 기간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성취가 시작됨을 표시할 것이다. 그 시험 기간은 이후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성취하는 일요일 법령에서 끝난다. 그 일요일 법령은 영화로운 땅에서의 마지막 일요일 법령이다. 영화로운 땅에서의 마지막 일요일 법령은 세계에서 첫 번째 일요일 법령이기도 하여, 세계를 위한 짐승의 우상 시험의 때를 표시한다. 세계적 시험의 때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미국의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된다. 가까이 임할 그 일요일 법령에서 미국이 용처럼 '말할' 때, 그 장의 12절 이후는 세계적 차원의 짐승의 우상 시험의 때를 가리킨다.

이러한 이유로, 313년의 칙령에서 시작되는 17년으로 마무리되고, 이어 321년의 최초의 일요일 법령과 330년의 동서 분열로 이어지는 네로의 250년 예언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로의 선의 세 단계는 핍박을 주제로 하며, 네로는 핍박의 표상이고, 서머나 교회를 표상하는 250년의 기간은 타협의 교회가 출현한 313년에 끝났다. 세 번째 단계는 한 왕국의 종결을 표징하므로, 이를 미합중국에 적용할 때 그것은 일요일 법령과 여섯째 왕국에서 일곱째와 여덟째 왕국으로의 이행을 대표한다. 세계에 적용할 때 세 번째 이정표는 인류의 은혜의 시기 종료이다. 이는 짐승의 형상의 세계적 시험 기간의 시작 시점에서 나타난 미합중국의 은혜의 시기 종료로 예표되었다.

그러므로 22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십자가로 표상되는 일요일 법령으로 이끄는 네 명의 로마 통치자 중 셋째인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는, 그 뒤를 잇는 자가 또한 십자가를 표상하는 티베리아스일지라도, 십자가를 표상할 수 있다. 짐승의 형상의 시험 기간은 먼저 땅을, 그다음에는 바다를 시험하는 이중의 시험이다. 땅은 미합중국을, 바다는 세계를 가리킨다.

짐승의 형상 시험은 이중의 표징을 산출한다. 곧 둘째 시기의 알파가 동시에 첫째 시기의 오메가가 된다. 321년은 예언적 역사에서 최초의 일요일법이었다. 그리고 짐승의 형상 시험기를 지목하는 17년 동안, 321년은 영화로운 땅에서의 짐승의 형상 시험기의 오메가 일요일법으로 이어지는, 미합중국에서의 첫 일요일법이다. 그러나 321년은 또한 세계를

위한 첫 일요일법이기도 하므로, 321년은 짐승의 형상 시험기의 시작과 끝, 양쪽 모두의 중간을 표시한다. 313년이 그 시작이며, 그 시작은 칙령이고, 이는 일요일법을 예표한다. 네로의 17년은 인류의 은혜시가 종결될 때까지 점증하는 일요일법의 시기를 지시한다.

그 칙령은 은혜의 시기의 종결로 이끄는 최초의 일요일 법령을 예표한다. 16절에서 폼페이우스가 유다를 점령했는데, 이는 일요일 법령을 예표한다. 또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제1차 삼두정치를 성립시켰는데, 비공식적인 삼중연합이었음에도 역사가들은 여전히 그것을 최초의 것으로 간주한다. 일요일 법령의 삼중연합에 대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예표는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의 공식적 삼두정치를 예표하였고, 그 뒤를 십자가의 때에 티베리아스가 이었다. 네 명의 로마 통치자 모두가 일요일 법령을 예표하며, 네로의 열일곱 해를 이루는 세 단계 모두 또한 그러하다.

폼페이우스는 1989년에, 율리우스는 11절에, 아우구스투스는 15절에, 그리고 티베리우스는 16절에 각각 부합한다. 절들에 나타난 율리우스의 이야기는 그가 이집트와 클레오파트라에게로 진군한 일을 포함한다. 그 역사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에 의해 반복된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율리우스가 스물세 차례의 칼에 찔려 암살되었을 때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주된 장군이었다. 스물셋은 일요일 법을 상징하며, 율리우스가 스물세 상처로 죽은 것은 일요일 법에서 한 왕국이 끝나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와 마르쿠스 레피두스는 그의 죽음에 복수하기 위하여 최초의 공식적인 삼두정치를 형성하였다. 그 삼중 권세 가운데 하나였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율리우스가 이집트와 클레오파트라와 맞닥뜨렸던 일을 다시 반복하려 하고 있었다.

율리우스이든 마르크 안토니우스이든 그들은 모두 로마의 상징이며, 클레오파트라는 애굽과 헬라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애굽 안에서의 헬라 통치를 대표하였으며, 이 둘은 모두 용의 상징인 반면, 율리우스와 마르크 안토니우스는 짐승의 상징이다. 관계 속에서 여자의 위치에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교회를 의미하였고, 따라서 율리우스와 마르크 안토니우스는 국가를 의미한다. 클레오파트라는 그녀의 왕적 로마 연인들에게 두 번 버림받는 여인을 나타내는데, 첫째는 1798년에, 둘째는 은혜의 시간이 마칠 때에, 아무도 돕는 자 없이 그녀가 자기 종말에 이를 때이다. 그녀의 최종적인 파멸은 기원전 31년 악티움 전투에서 이루어진다. 악티움 전투의 승자는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였으므로, 우리는 폼페이우스가 애굽에서 죽었고, 율리우스가 애굽에서 클레오파트라와 만났으며, 그것이 마르크 안토니우스의 역사에서 반복되었고, 이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가 악티움에서 그 관계를 끝냈음을 보게 된다. 악티움은 일요일 법을 식별해 주는데, 이는 악티움 전투에서 로마를 가로막던 세 번째 장애물이 제거되었고, 제국적 이교 로마가 Daniel 11:24의 성취로서 삼백육십 년 동안 통치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폼페이우스는 처음 두 장애물을, 아우구스투스는 세 번째를 넘었다.

그 중의 하나에서 한 작은 뿔이 나와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다니엘서 8:9.

폼페이우스는 1989년이며, 그것은 현대 로마의 치명적 상처가 치유되어 가는 동안 현대 로마가 극복해야 할 세 정치 권세 가운데 첫 번째 이정표이다. 곧 소련, 그 다음은 미국, 그리고 다니엘 11장 41절에서 말하는 유엔이다. 교황권의 전쟁은 정치적이면서

종교적이며, 예언적으로 레이건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비밀 동맹이 성취되었을 때 미국의 종교적 권세가 정복되었다. 교황권의 목표에는 세 가지 정치적 장애물과 세 가지 종교적 권세가 포함된다. 1989년에 그 세 정치 권세 가운데 하나가 쓸려갔고, 로마에 항의한다는 뜻을 실제로 지닌 말인 개신교도 같은 역사 속에서 미국 대통령에 의해 쓸려갔다. 세 정치 권세는 소련, 미국, 유엔이며, 종교적 표적은 개신교와, 모두 심령술로 간주되는 용의 다양한 종교들이다. 세계를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세 종교는 배도한 개신교, 가톨릭, 그리고 심령술이며, 교황권이 그들의 교회 안에서 겪는 보수와 진보 이데올로기 사이의 내부 투쟁과 정통 가톨릭주의 내의 분열은 종교적 장애물이고, 가톨릭이 정복해야 할 다른 두 종교적 장애물은 배도한 개신교와 심령술이다. 개신교는 1989년에 쓸려갔다.

파티마의 메시지들에서 유래한 다양한 가톨릭 예언들에 나타난 가톨릭교회의 내적 투쟁을, 가톨릭교회가 자신의 종교 외부에 있는 종교 권세들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분리하여 고찰한다면, 개신교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알파 승리는 레이건의 비밀 동맹이었고, 오메가 승리는 2025년의 공개 동맹이었다. 정교회들과의 투쟁 또한 1989년의 최초 승리로부터 파니움에서의 최종 승리에 이르기까지 묘사된다.

폼페이우스는 1989년과 상응하며,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동방과 아름다운 땅」으로 지칭되는 곳들에 대한 그의 두 차례의 승리는, 교황권이 구소련을 상대로 거둔 영적·정치적 승리와, 그에 수반되는 자칭 개신교의 영화로운 땅에 대한 영적 승리를 표상한다. 안티오코스 3세가 그랬고 또한 켈렌스키도 그러하게 될 것이듯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라피아에서 패할 것이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율리우스를 대상으로 하며, 이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가 조세를 부과하는 자로 일어난다. 십자가의 때에 티베리우스 카이사르가 통치하고 있으므로, 티베리우스는 16절의 일요일법에 해당한다.

이것은 아우구스투스를 15절의 파니움과, 11절의 라피아 전투를 율리우스와 일치시키는 것이다. 파니움 전투는 16절의 일요일 법 직전에 시작되는 제3차 세계 대전이지만, 이후 악티움 전투로 변형된다. 파니움은 육지의 전투(미국)였고, 악티움은 바다의 전투(세계)였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네 통치자 계열에서 파니움에 의해 표상되며, 악티움에서는 실제 지도자였다. 파니움에서 안티오코스는 로마와 동맹한 이집트를 상대하였고, 악티움에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와 동맹한 이집트(클레오파트라)를 상대하였다(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이것은 폼페이우스가 1989년까지의 40절을 표상하고, 티베리아스가 41절의 일요일 법을 표상함을 의미한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기원전 217년의 라피아 전투로 예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14년에 도래하였다.

이는 17절부터 22절까지가 1989년에 시작하여 일요일법령에서 끝난다는 것, 그리고 따라서 그것들이 40절의 '숨겨진 역사'와 일치하는 역사라는 것을 가리킨다. 마카비의 예언적 계열 또한 바로 그 동일한 '숨겨진 역사'와 일치한다. 로마 통치자들의 계열은 현대 로마, 곧 요한계시록 16장의 짐승을 지목하고, 마카비의 계열은 영화로운 땅, 곧 요한계시록 16장의 거짓 선지자를 묘사한다. 세 전투의 계열은 남방 왕, 곧 요한계시록 16장의 용에 대한 승리를 지목한다.

그 세 노선은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세 세력을 가리키며, 40절에서는 그것들이 남방 왕, 곧 용으로, 북방 왕, 곧 짐승으로, 그리고 병거와 마병과 배들, 곧 거짓 선지자로

나타난다. 10절부터 23절에 제시된 그 세 노선은 40절의 감추어진 역사 속의 그 세 세력을 나타내며, 이는 40절의 드러난 역사에서 제시된 세 주체에 대한 계속적인 예증에 다름 아니다.

1절

1절부터 4절은 1989년을 '종말의 때'로 가리키고, 그 기점부터 이어지는 미국의 여덟 대통령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훨씬 더 부요한 여덟째 대통령으로 결론을 맺는다. 4절에서 그 왕은 세계의 왕이 되는데, 이는 알렉산더 대왕, 아합 왕, 요한계시록 17장의 열왕, 시편 83편의 열 지파, 그리고 창세기 15:18-21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의 최초 단계에서 세계의 상징으로 제시된 열 나라로 표상된다.

1절부터 4절은 1989년으로부터 41절의 일요일 법령에서의 삼중 연합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대표하며,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네 명의 로마 통치자, 마카비 가문, 그리고 10절부터 15절의 세 차례 전투와 상응하는데, 이 세 전투는 함께 40절의 숨겨진 역사를 구성한다.

5절부터 9절까지는 538년에서 1798년에 이르는 역사를 완전하게 표상하는 예언적 연속선을 제시하며, 40절의 끝의 때의 의의를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예언적 논리를 제공한다. 그 논리는 10절을 5절부터 9절까지의 역사에 대한 보복으로 설명하고, 그러함으로써 1989년의 논리를 규정한다. 이는 다니엘 11장의 1절부터 23절이 40절의 숨겨진 역사와 상응하는 다섯 개의 예언적 연속선을 나타낸다는 뜻이다. 첫 네 절은 일곱에 속한 여덟째 대통령 트럼프에 관한 것으로, 그는 요한계시록 17장의 일곱째 왕국에서 열왕의 왕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1798년에 이르는 역사와 이어 1989년에 이르는 역사를 식별하는데, 이는 40절의 역사이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1989년에 시작된 세 차례의 대리전의 역사를 식별하며, 둘째 것은 2014년에 시작되었고, 이어 2015년에 가장 부유한 대통령이 일어섰다. 그 가장 부유한 대통령은 2020년에 죽임을 당하였고, 2022년에 라피아 전쟁이 격화되었으며, 그 후 2024년에 그 가장 부유한 대통령이 돌아왔고, 2025년에 짐승의 머리와 짐승의 우상의 머리가 모두 취임하였다.

이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